

Story Sunday #2
Bo Stern-Brady
September 15, 2024
이야기 주일 #2
보 스텐-브래디
2024년 9월 15일

This is a special Sunday. It's both a look back and look ahead. It's a celebration but also a recommitmen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unday for months and I'm so glad you're here. Last Sunday: The story of you. Stories and recipes.

Beaverton Foursquare Church was founded by Bill Melton and his wife, Jean, in 1961. In 1964, the congregation purchased 10 acres along Walker Road, which was then on the outskirts of Beaverton. The initial building project started in 1966 with the chapel being completed in 1968. The average weekly attendance at that time was 75 people. PICTURES . (Jacob - Steve Mitchell has these two photos!) In 1973, [Ron Mehl](#) took over leadership of the church. During his time of leadership, the weekly attendance increased to over 5,000 people. A number of new building projects were completed in order to accommodate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the staff also increased tremendously during this time. Ron Mehl died in 2003 and Randy Remington took the reins as lead pastor. Brad Williams took over in 2019 when Randy was elected president of Foursquare. I took over as interim in May of 2023 and was set in as the permanent lead pastor in March of this year. Every day, when I step onto this property, I think about the fact that all of this was someone's dream. All of this represents I don't even know how many hours of prayer and faith and money invested by people most of us will never know this side of heaven. We stand in the legacy that they built. We stepped into their story. We were in a difficult season when I stepped into the role of interim and my goal was primarily to hold the ship steady and get the staff healthy. We worked really hard as a team and as a church to stand in the face of a disappointing season and hold together - first to Jesus, then to our trust in one another. When I took over as lead, my vision began to turn away from that painful season and toward: "What story is Jesus writing in our church because of the stories that we've lived out already?" Part of that effort has been identifying some recipes that have not worked here at B4 and beginning to let our good Father direct us toward what he is doing and what he wants to do as we move forward.

특별한 주일

이번 주일은 되돌아보는 시간이자, 앞으로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축하하는 동시에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주일을 고대해 왔고,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이야기. 이야기와 레시피.

비버튼 포스퀘어 교회는 1961년에 빌 멜턴과 그의 아내 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64년, 교회는 당시 비버튼 외곽에 있던 워커 로드에서 위치한 10에이커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첫 건축 프로젝트는 1966년에 시작되었고, 예배당은 196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주일 예배의 평균 참석 인원은 75명이었습니다. (사진) (제이콥 - 스티브 미첼이 이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1973년에 론 멜이 교회의 리더십을 맡게 되었고, 그의 지도하에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5,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맞춰 여러 건축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그와 함께 교회의 직원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론 멜은 2003년에 사망하였고, 랜디 레밍턴이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랜디가 2019년에 포스퀘어 총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브래드 윌리엄스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저는 2023년 5월에 임시 리더로서 역할을 맡다가 올해 3월에 정식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매일 이 교회에 발을 들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 재정적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유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발을 들였고,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셈입니다. 제가 임시 리더로 처음 역할을 맡았을 때,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의 주요 목표는 교회를 안정시키고 직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팀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직면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해 굳건히 서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리더가 되었을 때, 제 비전은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부는 이 교회에서 효과가 없었던 몇 가지 레시피를 찾아내고,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Four words that I believe form our future: (JACOB: The four words can go on one slide.)

미래를 형성할 네 가지 단어:

(제이콥: 네 단어는 한 슬라이드에 넣어주세요.)

Hope 희망

Healing 치유

Freedom 자유

Flourishing 번영

These are the words that will write our story. He has been to the future and back. He knows what B4 can accomplish here in our spot on Walker Road and beyond. He knows the reach.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미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은 이곳 워커 로드 위에 위치한 B4 교회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향력을 알고 계십니다.

Verse: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All-surpassing = From hyperballo; a throwing beyond others, i.e. supereminence; adverbially pre-eminently. The treasure we have is that it's God's power and not ours and His power out-throws all the others, it reaches farther, it reaches deeper, it conquers, it saves, it heals, it frees. His power is better at freedom than the powers of darkness are at bondage. His power of life surpasses the enemy's power of death. And not just by a little - ALL surpassing. This is the treasure we have in our tiny little fragile frames of flesh. We contain the all-surpassing power of God to accomplish the four things He is most passionate about: Hope for eternal life. Healing for heartache, sickness and pain. Freedom from debilitating lies and fear and alliances. Flourishing lives that produce fruit by the bushel. Lives that bring food to the hungry both literally (Jesus did it ALL the time) and spiritually. Our lives can do that. Your small clay pot can be filled with power to accomplish gREAt things. As a church, we are a collection of containers, each with room for more power to impact a specific situation than we can even imagine. We are His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us. We have his word on it. We trust His power. We are the story He is writing.

What has that story been so far this year?

"모든 것을 능가하는"

헬라어 'hyperballo'에서 온 이 단어는 '다른 것들을 넘어 던지다', 즉 최고로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다른 모든 능력을 능가합니다. 더 멀리 도달하고, 더 깊이 스며들며, 정복하고, 구원하며, 치유하고, 자유케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속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유를 주는 데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적의 죽음의 권세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이 보물이 우리가 가진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어, 그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시는 네 가지들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영생을 향한 희망,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위한 치유, 속박과 두려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넘치는 열매를 맺는 번영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과 같은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질그릇도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질그릇들의 모음입니다. 각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특정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올해까지 그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Stats & Slides.

You have a book that tells part of the story of the dreams we have for our future and the way we are building toward that now. In my heart, there is so much more story. About a place where every image bearer comes into contact with the good news of the gospel and in this space, learns to hear the voice of the One who loves them most. I have a dream of a place where our stories begin to mingle and build together and from each other we see more of His goodness and character than we could ever see on our own. I have a dream of families serving and worshiping together and growing in grace...of single parents finding strength through community that partners with them to create beauty. I have a dream of a core of people who give, care, love and serve this city with passion and purpose.

More than anything, I have a dream of one day standing in front of Jesus with those who are won to his heart and his way through the work that we do together. How do we get there? How do we see the beautiful dreams become reality? Become a stakeholder here. How?

통계 및 슬라이드

여러분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떻게 건설해 나가고 있는지 일부를 담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접하고, 그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배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 엮이고 함께 세워지며, 서로를 통해

우리가 독립적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꿈꿉니다. 가족들이 함께 섬기고 예배하며 은혜 안에서 자라는 꿈, 싱글 부모가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그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도시를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기부하는 핵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꿈꿉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길로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꿈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진정한 이해관계자가 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hree main things.

1. **Show up to the story.** If this is your church...where God is calling you, where He is planting you, show up. Stay in the garden. Not just because it's good for you, but because you're good for us. We need you. And you need community.
2. **Play a part in the story** (in prayer and in acts of service). Everybody prays and everybody plays! We need you in kids or in coffee or at the doors or on the prayer team. Everybody plays. If this is your church, we're asking you to take the next month to investigate the many opportunities there are to be involved, to hold some weight here...and to try a few out and then commit to something. www.b4church.org/joinateam If you absolutely aren't ready for that, you can carry some weight by just being really kind and welcoming to every person you see in this building every time you're in it. We're not company, we're family and family welcomes guests warmly and with joy. This is a big place and it can be overwhelming - be a welcomer. (
3. **Invest in the story.** I don't talk about giving much because I really do trust God for our finances. But nothing happens here without giving. The lights go on, the coffee gets made, the building is maintained, schools in _____ and _____ are funded, water projects are built and about a thousand other things because of the generosity and obedience of our giving church. Our giving has steadily declined since Covid and while we are a blessed and thankful church, this is a good time to say: We really need people who listen to Jesus and partner with Him financially in the work of B4. If you've never been a tither or a participant in the offering part of our worship service, could I challenge you to step out in faith and see what God will do? Giving is a kind of revolt against a system that's meant to keep us in fear, scarcity. Resist that and see what might happen next.

세 가지 중요한 것

1. 이야기에 참여하세요.
이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교회이고, 그분이 당신을 심으시는 곳이라면, 이 이야기에 함께하세요. 이 정원에 머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도 좋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2. 이야기 속에서 역할을 하세요 (기도와 봉사로).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참여합니다! 아이들 사역, 커피 서비스, 문 안내, 기도팀 등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교회라면, 다음 한 달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탐색하고, 이곳에서 일정한 무게를 함께 지탱하며, 몇 가지를 시도한 후 하나에 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www.b4church.org/joinateam
만약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만으로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고, 가족은 손님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곳은 큰 공간이기에 종종 압도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

3. 이야기에 투자하세요.

저는 헌금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재정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헌금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켜지고, 커피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유지되고, 다른 나라의 학교와 물 프로젝트가 지원되는 등 많은 일들이 교회의 관대함과 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헌금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재정적으로 B4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십일조나 예배 중 헌금에 참여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시길 도전드립니다. 헌금은 우리를 두려움과 부족에 묶어두려는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 시스템에 저항하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세요.

That's it. Those three things. Show up. Play a part. And invest. This isn't Bill Melton's church or Ron Mehl's church or Randy Remington's church and it's certainly not Bo Brady's church. This is GOD's church and we are HIS. We are the containers into which He is pouring his power. We are the books in which He is writing his story. And we are here together for such a time as this. Now is the time to say yes to belonging, to rolling up your sleeves and to digging in the dirt of this beautiful garden. (This is a song of rededication. During this song...ask Him...am I in? Is this my home? Am I ready to step into the story of his kingdom coming to our world?)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참여하고, 역할을 하고, 투자하세요.

이곳은 빌 멜튼의 교회도, 론 멜의 교회도, 랜디 레밍턴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 브래디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부여되는 그릇이고, 그분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위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속할 때, 소매를 걷어붙일 때, 이 아름다운 정원의 흙을 함께 가꿀 때입니다. (이것은 다시 헌신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나요? 이곳이 저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제가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Song.

BENEDICTION:

Steve Mitchell found the original program from the dedication of the first building here on this property. I was excited to use a part of it in this message and when I was writing it in my notes, I turned over the program to see the date of that very first dedication and it was: September 15, 1967 - exactly 57 years ago today.

축도:

스티브 미첼이 이곳의 첫 번째 건물 헌당식 원본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그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노트에 작성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뒤집어 그 첫

헌당식 날짜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날짜가 바로 1967년 9월 15일, 오늘로부터 정확히 57년 전이었습니다.

The dedication went like this:

For the winning of others from sin to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e dedicate this building. For the provision of spiritual worship in prayer and praise which will comfort the sorrowing and strengthen those who are weak. We dedicate this building. For the teaching and preaching of the Bible, God's Holy Word, and the pointing of the way to God for our community. We dedicate this building. With gratitude to God for the founders of this Church and for men and women of vision who down through the years have labored to help make this building possible, we dedicate this building. With the personal consecration of ourselves ever to be true to God and His word as we occupy this lovely house of the Lord, we dedicate this building. With the prayer that future generations may be blessed to the Glory of God and that this house shall always and only honor Him, we dedicate this building. And then this paragraph at the end was read in unison and today, I thought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ad it together again - WE the next generation of B4 church who are very people spoken of in faith as they dedicated the building. We who will continue to carry the good news of great joy to the world around us. We, the current stakeholders in this plot of ground where God has planned and planted such beautiful things. Let us rededicate this space and our hearts by reading this benediction together:

헌당식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죄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한 영적 예배를 제공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약한 이들을 강화시키는 일을 위해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는 일을 위해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이 교회의 창립자들 그리고 수년간 이 건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한 비전을 가진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진실한 자신을 개인적으로 헌신하며,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받고 이 집이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이 문단을 오늘 다시 함께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B4** 교회의 다음 세대, 헌당식에서 믿음으로 말해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심으신 이 땅의 현재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이제 이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헌신하며 이 축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We now, the people of this Church and congregation, compassed about with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grateful for our heritage, aware of the sacrifices of our Fathers in the Faith, confessing that apart from us their work cannot be made perfect, we do dedicate ourselves anew to the Worship and Service of Almighty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이제 우리는 이 교회와 회중의 사람들로서, 큰 구름의 증인들에 둘러싸여 우리의 유산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들이 지불한 희생을 인식하고, 그들의 일이 우리 없이 완성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합니다. 아멘.